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제리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경행동강령 25주년 기념
국제포럼 참가기

박윤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 복합위기 시대의 도시정책, 페미니스트 여성 시장

김은희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경행동강령 25주년 기념 국제포럼 참가기*

박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I. 들어가는 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을 통해 189개 유엔 회원국은 여성복지, 빈곤, 장애, 차별 등을 해결하고 다음 세기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과 연대를 약속하였으며, 12개 주요 부문의 전략목표와 행동 계획으로 구성된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 및 동등함 참여를 촉구하였다. 금년 2020년도는 북경행동강령 수립 2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유례없는 난국을 맞이하였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2020년을 ‘성평등을 향한 전환의 해’로 선포하고, 북경 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을 기념하여 멕시코, 프랑스를 공동의장국으로 선정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정이 내년도로 연기되었다. ‘세대평등포럼’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후 25년이 지난 오늘날 완전한 평등을 달성한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북경여성회의의 세대의 노력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한다는 합의 하에 6개 영역¹⁾을 선정하고 각 영역에서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민간기업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을 기념하고 2021년으로 연기된 ‘세대평등포럼’의 논의를 준비하고자 “새로운 세대와 함께하는 성평등한

* 이 글은 본원에서 2020년 11월 25일에 개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경행동강령 25주년 기념 국제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1) 세대평등포럼의 6개 영역: 1)젠더기반폭력; 2)경제 정의 및 권리; 3)자기 신체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4)기후정의를 위한 여성주의 활동; 5)성평등을 위한 기술 혁신; 6)여성주의 운동과 여성 리더십.

미래(Beijing and Beyond: Creating Gender Equal Future with the Next Generation)”을 주제로 지난 11월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경행동강령 25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세대평등포럼’의 공동의장국인 멕시코, 프랑스와 협력하여 공동개최하였다. 또한 연사로는 유엔여성기구가 선정한 세계 청년 대표들과 공동주최국의 성평등대사가 참여하여, 향후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전략 모색을 위한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기고문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경행동강령 25주년 기념 국제포럼」에서 발표된 내용과 논의 사항을 간략히 공유하고자 한다.

2. 포럼 발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경행동강령 25주년 기념 국제포럼」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경 25년 성과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멕시코, 프랑스, 대한민국 발표자들이 성평등 달성을 위한 활동, 성평등 의제에 대한 북경행동강령의 의의와 성과를 중점으로 발표하였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청년 활동가들이 성평등에 대한 견해 및 개인의 노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표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경행동강령 25주년 기념 국제포럼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및 온라인 입장
14:00~14:05	사회: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개회사: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브루노 피게로아 주한멕시코대사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14:05~14:50	〈북경 25년 성과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 발표 1. 마샤 델가도 페랄타, 멕시코 외교부 다자외교·인권 차관 발표 2. 델핀 오, 프랑스 세대평등포럼 대사/사무총장 발표 3.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 *본 발표 이후 야네릿 모간 멕시코 세대평등포럼 대사/사무총장이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약 5분 정도 추가 발언 예정

구분	프로그램
15:00~15:40	<p>〈라운드 테이블: 새로운 세대의 미래 전망〉</p> <p>토론 1. [대한민국] 청년여성의 정치참여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p> <p>토론 2. [캐머룬] 성·생식보건 캐린 다사하 Beijing+25 Global Youth Taskforce 대표</p> <p>토론 3. [필리핀] HIV/성평등/천주교 성·생식보건 교육 다렌 폴 카틱박 Beijing+25 Global Youth Taskforce 대표</p> <p>토론 4. [시리아] STEM 분야 성격차/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살람 알-녹타 Beijing+25 Global Youth Taskforce 대표</p>
15:40~16:00	<p>종합 토론 참가자 질의 응답 및 토론</p>

〈세션1: 북경 25년 성과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

가. 마샤 델가도 페랄타, 멕시코 외교부 다자외교·인권 차관

세션1의 첫 번째 발표자는 마샤 델가도 페랄타(Martha Delgado Peralta) 멕시코 외교부 다자외교·인권 차관은 성평등 달성을 위한 멕시코 정부의 노력과 ‘세대평등포럼’의 전반적인 배경을 제시하였다.

멕시코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한 제1차 세계여성대회(1975년)를 개최한 국가로 현 멕시코 대통령의 내각과 의회를 남녀동수로 구성하는 등 성평등 달성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마샤 델가도 페랄타 차관은 2021년 개최 예정인 ‘세대평등포럼’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대평등포럼’은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인 포럼으로 젠더기반폭력, 경제 정의 및 권리, 자기 신체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후정의를 위한 여성주의 활동, 성평등을 위한 기술 혁신, 여성주의 운동과 여성 리더십과 같이 6개 영역에서 행동연합을 구성하고, 각 영역에서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유엔기구, 민간 부문의 다자 파트너십을 통해 성평등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동 포럼은 각 주제를 상호교차적으로 접근하여 주제를 횡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일련의 토론과 공개대화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통해 더 다양하고 많은 참가자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며, 이번 포럼에서 25년전 북경행동강령의 주요 이념을 바탕으로 행동주의 페미니스트 연대와 젊은 리더십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회원국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여성평화안보 및 인도주의적 활동에 관한 협정은 관련 주요 의제와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샤 델가도 페랄타 차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다국가 협력 활성화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하며,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효과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다자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나. 델핀 오, 프랑스 세대평등포럼 대사·사무총장

마샤 델가도 페랄타 멕시코 외교부 다자외교·인권 차관의 세대평등포럼에 대한 개괄적인 발표에 이어 델핀 오 프랑스 세대평등포럼 대사·사무총장은 여아 및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세대평등포럼의 6개 주제 영역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델핀 오 대사는 1995년 북경행동강령 수립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2020년은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와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는 길을 닦은 국제적 청사진인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채택 25주년으로, 북경행동강령 수립을 통해 여성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여성과 여아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9년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에 의하면 북경선언은 아직까지 일부만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일부 여성의 권리는 오늘날까지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 10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보수 성명인 제네바 합의문에 총 32개의 국가가 서명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수십년 간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온 성평등을 향한 진전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3월 멕시코시티, 6월 파리에서 개최될 세대평등포럼은 성평등 달성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성평등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여성권리에 대한 새로운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하며, 세대평등포럼의 6개 주요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공유하였다:

- 1) 젠더기반폭력: 세대평등포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만연했고, 폐쇄기간 동안 심화된 모든 형태의 온·오프라인에서의 젠더기반폭력에서 다룰 예정이다.
- 2) 경제 정의 및 권리: 경제정의 및 권리 부문에서는 여성 임파워먼트와 여성의 경제적 정의를 중심에 두고, 동일 임금, 자원에 대한 접근권 및 소유권, 복구계획에서의 젠더

관점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3) 자기 신체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정보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신체, 성적 결정권, 삶에 대한 방식 등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젠더규범의 변화,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등 유해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피임 대한 접근, 정보접근 및 포괄적인 성교육 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4) 기후정의의 위한 여성주의 활동: 기후 변화에 대항하는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여성, 특히 여성 농부들과 가난한 여성들에게 보다 심각하게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여학생들에게 환경 정의에 대해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5) 성평등을 위한 기술 혁신: 여성들은 혁신과 기술의 힘을 길러야 하며, 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STEM 분야(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여성과 여아들을 위한 기술 프로세스, 혁신적이고 디지털적인 직장은 안전해야 한다. 또한, 혁신 그 자체가 성인지적이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 6) 여성주의 운동과 여성 리더십: 여성주의 활동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를 통합하여, 해당 분야의 NGO를 지원하고 모든 조직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협력을 시작하도록 한다.

이어서 앞서 설명된 세대평등포럼의 6개 부문 행동연합을 통해, 우리는 여성·평화·안보 협정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협정은 회원국, NGO, 민간기업들이 WPS(여성·평화·안보) 약속을 이행하고 새로운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WPS 의제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나미비아에서 이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개최될 세대평등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다.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

세 번째 발표는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가 국제적인 차원의 여성의제가 한국 정책에 미친 영향, 한국의 여성이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영숙 대사는 제일 먼저 국제적 여성의제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 성평등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국제사회 그리고 글로벌 성평등 규범 측면에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국제 여성 의제가 발전하게 된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 1979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4년 논의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합의 등,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모여져 1995년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2020년 이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이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였다. 북경행동강령을 통해서 성 주류화 전략이 국내에 소개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였다. 세 가지는 ‘1) 성평등이 없는 평등사회는 가능한 것인가?, 2) 젠더폭력에 대한 근절이 없는 민주 사회가 가능한가?, 3)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참여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가능한가?’이다.

이후 한국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은 90년대 이후 여성관련 정부의 정책 부서 설립, 여성할당제를 포함한 다양한 여성우대 조치,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한 입법, 호주제 폐지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성 주류화 전략이 본격화되며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왔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조영숙 대사는 이러한 성과 이후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여성이슈들을 제기하였다. 현재 한국은 미투운동,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여성혐오, 높은 여성청소년 자살률 등 여전히 너무 많은 여성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영숙 대사는 이 중에서도 한국의 성격차와 유리천장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성격차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0년에 134개 국가 중 104위였던 성격차 지수가 2019년도에는 153개국 중 여전히 108위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은 교육적 성취, 건강과 수명에 있어서는 여성은 남성과 거의 다를 바 없는 0.98에 이르는 동등한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경제 참여와 기회에 있어서는 127위에 이르는 아주 낮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리천장지수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사례는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경제성장 자체가 자동적으로 성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여성에게 전가된 재생산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과 재가치 부여와 재분배 필요성,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서 발표 마지막으로 세대평등포럼에서 다루어야 될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세대평등포럼의 6개 주제와 행동연합, 그리고 여성·평화·안보 협약과 관련된 여러

이슈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세대평등실현을 위한 도전은 오래된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된 문제로는 법과 제도의 미비한 이행, 실질적인 성 주류화 실패, 구조적인 차별철폐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래된 문제에 덧붙여서 지금 세대평등포럼의 6개의 주제 분야 중 하나인 젠더기반폭력에 있어서 새롭게 나타난 문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디지털 성격차, 여러 형태의 여성혐오 문화 등 도전적인 문제를 앞으로 세대평등포럼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영숙 대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실질적인 성평등 달성과 구조 및 제도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언어 및 행동의 성평등 전환, 관계 내에서의 평등, 모든 조직 안에서의 성평등한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구조 및 제도적 평등과 같은 4가지 차원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라. 야네릿 모간, 멕시코 세대평등포럼 대사/사무총장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은 야네릿 모간 멕시코 세대평등포럼 대사/사무총장의 발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야네릿 모간 대사는 이번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세대평등포럼의 주요정신 6개를 강조하였다.

첫 번째는 동원(mobilization)이다. 야네릿 모간 대사는 20년 전 북경여성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세대평등포럼은 시민사회단체의 동원과 페미니스트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주요 정신은 파트너십이다. 세대평등포럼을 통해 시민단체, 여성운동가, 청년 단체, 민간부문, 국제기구, 학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성평등 의제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로 강조된 부분은 이번 포럼은 행동지향적이라는 점이다. 포럼 목표 중 하나는 6개의 주제 분야별 행동연합을 통해 5년 이내에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며, 또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야네릿 모간 대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 세대와 함께하는 세대 간 대화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에 참여한 청년대표들에게 기대를 표명했다.

다섯 번째로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언급하며 원주민 여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 여아, 빈곤 여성, 이주민, 난민 여성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과 여아의 현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ve leadership)을 강조하였다. 야네릿 모간 대사는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여성리더십을 성평등 달성을 위한 동력으로 삼고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세대평등포럼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세션2: 새로운 세대의 미래 전망〉

가. 대한민국: 청년여성의 정치 참여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두 번째 세션에서는 〈행동주의에서부터 리더십까지: 대한민국 청년여성의 정치대표성 (From activism to leadership: You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를 주제로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발표에서 윤지소 부연구위원은 한국 청년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청년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성대표성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서 윤지소 부연구위원은 정치영역에서 청년여성은 여전히 중요한 소수자 집단이며, 선출직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려는 청년여성이 늘지 않는다면 정치영역에서 여성 과소대표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청년여성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며, 19대 대선 경우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5%p 정도를 상회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또 최근 진행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당에 가입한 여성 청년당원 수가 상당하며 선출직을 고려하는 여성 청년당원의 수도 적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청년여성의 경우 성평등 의제를 뚜렷한 정책 의제로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성평등, 남녀차별, 남녀갈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청년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중장년층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는 정당 분위기, 청년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및 기구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청년여성의 정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의 예산 확보, 청년여성들만의 공간 및 네트워크 활성화, 당직 및 위원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할당 규정 등의 확대 등을 언급하며, 청년여성의 활발한 정치활동 참여는 단순히 청년 여성 정치인의 수가 늘어 나는데 그치지 않고 후세대 여성에게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나. 카메룬: 성·생식보건 (캐린 다사하, Beijing+25 Global Youth Taskforce 대표)

두 번째 발표로는 북경+25 글로벌 청년 TF (Beijing+25 Global Youth Taskforce) 대표 캐린 다사하는 카메룬 내 분쟁이 여성과 여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크게 여성에 대한 폭력, 보건, 교육 세 가지 주제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첫 번째로 여성에 대한 폭력 부분에서는 분쟁으로 인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강간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전쟁 중 여성과 여아에 대한 납치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많은 여성과 여아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는 분쟁으로 인해 많은 의료시설이 파괴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명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과 여아는 이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교육분야에서는 분쟁으로 많은 학교가 파괴되었고, 학교시설이 군사기지로 사용되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분쟁지역과 인근지역의 문맹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캐린 다사하는 청년활동단체의 지원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캐린 다사하가 활동하는 청년단체는 분쟁지역에서 폭력생존자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심리적인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그 외에도 평화구축, 인도주의적 지원, 성·재생산 보건 및 권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린 다사하는 한정적인 활동자금과 지원이 부족하여 많은 청년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에 비해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년단체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다. 필리핀: HIV/성평등/천주교 성·생식보건 교육

(다렌 폴 카틱박, Beijing+25 Global Youth Taskforce 대표)

세 번째 발표자로는 필리핀의 다렌 폴 카틱박 북경+25 글로벌 청년 TF 대표가 필리핀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HIV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다렌 폴 카틱박은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와 함께 지난 5년간 HIV 및 공중보건 부문에서 일하며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렌 폴 카틱박은 간단하게 필리핀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분야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프로그램을 공유하였다.

첫 번째로 소개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참여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이다. 최근 성평등 논의의 여러 단계에서 많은 청소년 및 청년들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때로는 존중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불평등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HIV에 감염된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존중받고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성평등 관련 활동에 남성의 참여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젠더규범과 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렌 폴 카터박은 젠더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실현에서 남성의 통제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서 남성들의 참여는 성평등 실현을 보다 가속화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렌 폴 카터박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성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젊은이들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두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는 인권실현의 기본이며 빈곤 감소, 여성 역량강화의 바탕이 됨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라. 시리아: STEM 분야 성격차/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살람 알-누타, Beijing+25 Global Youth Taskforce 대표)

마지막으로는 시리아의 살람 알-누타 북경+25 글로벌 청년 TF 대표의 시리아 여성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살람 알-누타는 기업가정신이 경제적인 번영과 포용성에 대한 좋은 해결방안이지만 여성에게는 시장고용과 창업으로의 진입 기회가 남성에 비해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고, 남성보다 더 높은 재정적, 사회적 진입장벽을 마주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술이 기업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디지털 기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성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살람 알-누타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술을 가진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Change Maker'를 설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Change Maker'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여성 프로그래머들로 구성되어, 자체개발한 강의로 여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있다. 살람 알-누타는 'Change Maker'를 통해서 코딩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으며, 고정관념을 깨고 성공적인 역할 모델(role model)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성평등적인 기업가정신과 기술은 발전과 개발의 기본이며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을 통해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여성이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여성도 스스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살람 알-누타는 포럼에 참석한 모두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힘을 실어줄 것인지, 청년들의 획기적인 혁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살람 알-누타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두 시간 정도 계속된 발표에 이어 온라인으로 참석한 참가자들과 발표자들 간의 질문이 이어지며 포럼이 마무리되었다.

3. 나가는 글

이번 포럼은 북경행동강령 수립 25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성평등 의제 실천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남아있는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내년에 개최될 '세대평등포럼'이라는 논의의 장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젠더 이슈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있는 자리였다.

북경행동강령 이후 성평등 측면에서 우리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오래된 차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포럼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디지털 성격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번 북경행동강령 25주년 기념 국제포럼과 세대평등포럼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듯이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성평등 달성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연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행동한다면 앞으로 놓인 많은 도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후속 조치와 내년 개최될 '세대평등포럼'에 대해 정부, 시민사회, 여성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복합위기 시대의 도시정책, 페미니스트 여성 시장

김은희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1. 도시 정치의 시대, 지속가능한 도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각자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잠시나마 바깥 공기를 느끼기 위해 산책에 나설 때조차 가급적 사람들이 한적한 시간을 택하게 된다. 동네 길을 산보하며 마주치는 이웃과 반갑게 포옹하고 거리의 카페에 마주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던 일상이 과연 언제였던가, “여성이 도시를 걷는다는 것”의 각별함을 말했던 로런 엘킨의 이야기조차 새삼스럽다.¹⁾

위드코로나 혹은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이라는 말처럼 감염병 대유행은 개인적 일상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정부 정책방향도 바뀌도록 만들고 있다. 이미 도시정치가 주목받기 시작한 지 오래지만, 감염병 위기의 대처 과정에서 도시 혹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에서도 도시를 “지구와 지역을 연결하는 지속가능개발의 로컬 차원”을 선도하는 연결의 장소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²⁾ 특히 자동차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바꾸고, 녹색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홍수와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시정책의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가 강조되고 있다.³⁾

1) 로런 엘킨(2016), 『도시를 걷는 여자들(Women Walk the City in Paris, New York, Yokyo, Venice and London)』, 홍한별 옮김(2020), 반비.
2) UNESCO(2020), Urban Solutions: Learning from Cities' Responses to COVID-19, UNESCO CITIES PLATFORM, (25 JUNE, 2020), p.33.
https://en.unesco.org/sites/default/files/ucp_meeting_report_.pdf (최종검색:2020.12. 5.)
3) Oliver Milman(2020), Why some US cities are plotting a 'green recovery' after the pandemic,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sep/18/us-cities-plot-green-recovery-after-pandemic> (최종검색: 2020.12. 5.)

2. 늘어나고 있는 유럽의 여성 시장들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자체가 유럽에서 비롯한 것이기는 하나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손꼽을 만한 도시로 노르웨이 오슬로(Oslo)를 소개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8년부터 매년 유럽녹색수도(The European Green Capital Award, EGCA)를 선정하고 있는데, 오슬로는 2019년 EGCA에 선정된 바 있다.⁴⁾ 다양한 녹색도시 정책이 있겠지만,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⁵⁾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노력은 눈여겨 볼만하다. 2002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로 만들려는 ‘비전 제로(Vision Zero)’를 시작한 이래 2019년에는 처음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⁶⁾ 이 도시 오슬로의 시장은 여성인 마리안느 보르겐(Marianne Borgen)으로 자치구의원과 시의회의원 경험을 거쳤고, 노르웨이 아동옴부즈만으로 일했으며, 2015년 선출된 이후 일터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사무국장을 휴직하고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⁷⁾ 20년 만에 다시 오슬로의 여성 시장이 된 보르겐은 사회주의좌파당 소속으로 보행자 중심 도시를 지지하고 아동권리를 강조하는 포용도시를 추구한다.⁸⁾



[사진 1] European Green Capital 2019에서 연설하고 있는 보르겐 오슬로 시장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european_green_capital/39734201683/in/album-72157675467234117/

4) <https://www.sustaineurope.com/oslo-european-green-capital-2019-20191023.html> (최종검색:2020.12. 5.)

5) 도로연장별 제한속도 기준을 보면 시속 30km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전체의 65.8%를 차지한다.

6) <https://www.aftenposten.no/oslo/i/d00rzz/1975-41-doe-de-i-oslo-trafikken-2019-en-doe-de-i-oslo-trafikken> (최종검색:2020.12. 5.)

7) <https://www.oslo.kommune.no/politics-and-administration/politics/the-city-council/the-mayor/#gref> (최종검색:2020.12. 5.)

8) <https://www.tnp.no/norway/politics/5113-socialist-marianne-borgen-becomes-oslo-norway-new-mayor> (최종검색:2020.12. 5.)

한 때 여성들은 도시를 산책하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웠지만,⁹⁾ 이제는 도시를 관장하는 시장의 역할도 어색하지 않다. 유럽의 경우 앞서 소개한 보르겐 오슬로 시장 외에도 비르지니아 라지(Virginia Raggi, 최초) 이탈리아 로마 시장, 안나 퀴니그 예를뮌르(Anna Margaretha König Jerlmyr) 스웨덴 스톡홀름 시장, 펴케 할세마(Femke Halsema, 최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장, 가브리엘라 피레아(Gabriela Firea, 최초)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시장, 헤이즐 추(Hazel Chu) 아일랜드 더블린 시장, 요르단카 판다코바(Yordanka Asenova Fandakova) 불가리아 소피아 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 최초) 프랑스 파리 시장 등 각 국가의 주요도시에 여성 시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지방선거를 치른 프랑스의 경우 파리 외에도 마르세유¹⁰⁾, 릴, 스트라스부르, 낭트 등의 거점도시에서 여성이 시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파리의 경우 자치구 시장(Maires d'arrondissement)에 당선된 17명 중 7명이 여성이다.

3. 멕시코시티 최초 민선 여성시장에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유럽 도시들의 변화와는 달리 여성을 배제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여전하다. #metoo 운동의 한 복판에 치러졌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아재지도’라고 불릴 만큼 남성 일색이었던 자치단체장 공천이 비판을 받았고, 아직까지 선출직 광역단체장 당선인에 여성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시기적으로 한국 지방선거 결과가 있고 나서 멕시코에서 치러진 선거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변화의 바람에 주인공이 된 인물은 멕시코시티 최초 여성시장에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udia Sheinbaum)이다. 블룸버그(Bloomberg City Lab)에서는 페미니스트와 정치계 여성들의 수십 년에 걸친 운동의 결과였다고 평가하면서 멕시코시티의 첫 여성 시장 선출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¹¹⁾

9) 산책을 할 기회나 산책 활동은 대체로 부유한 남성의 특권이였다. ; Deborah Parsons (2000), *Streetwalking the Metropolis: Women, the City, and Modernity*, Oxford: OUP, p.4.

10) 2020년 6월 선출된 미셸 루비롤라 마르세유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2020년 12월 15일 사임했다.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0/12/15/la-maire-de-marseille-michele-rubiro-la-annonce-sa-demission_6063475_823448.html (최종검색: 2020.12.17.)

1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8-06/audia-sheinbaum-and-women-s-rise-in-mexican-politics> (최종검색: 2020.12. 5.)



[사진 2] 성 중립 교복 정책을 발표하는 세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 ©로히터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48511416?ocid=socialflow_twitter

세인바움 시장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에너지공학을 전공하고 도시의 환경 및 모빌리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성평등부서를 강화하고 정책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멕시코의 오래된 숙제인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해 성에 기반한 범죄에 대해 확고한 처벌을 통한 종식을 약속하기도 했다.¹²⁾ 멕시코시티 도시정책의 젠더주류화 전략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도적으로 입안 시행 모니터링의 체계를 갖추는 등 정책의 실효가 합리적이고 견고하여 서울시에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¹³⁾

또한 7가지 핵심 계획을 포함하는 ‘멕시코시티를 위한 종합 환경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으며,¹⁴⁾ 새로운 성 중립적 교복정책 지침을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세인바움 시장은 “여자아이들이 치마를 입고 남자아이들이 바지를 입어야 했던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갔다고 생각한다”며 성 중립적 교복 정책은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평등과 형평성의 조건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⁵⁾ 그 외에도 시장 역점사업으로 소외계층 주거 지역 청소년의 자활과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자 사회혁신센터로 ‘필라레스(PILARES)’를 설치했는데, ‘프리다칼로 필라레스(PILARES Frida Kahlo)’는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의 이름을 딴 청소년 예체능 교육활동 특화 센터이다.

12) <https://www.reuters.com/article/us-mexico-women-violence-idUSKCN1U42MM> (최종검색: 2020.12. 5.)

13) 서울연구원(2020), 『중남미 사회혁신 정책포럼과 시사점』, 서울연 2019-OR-32, 15~16쪽 참조.

14) <https://www.eishub.or.kr:8443/hb/board/article/23100000/313408> (최종검색: 2020.12. 5.)

15)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48511416?ocid=socialflow_twitter (최종검색: 2020.12. 5.)

최근 11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선거관리위원회(INE)는 여성의 공직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중간선거에서 각 정당이 선거가 있는 총 15개 주지사직에 후보를 낼 때 적어도 그 중 7개 주에서는 반드시 여성을 후보로 내야한다는 원칙을 승인했는데, 이 결정은 멕시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¹⁶⁾

4. 페미니스트 도시를 위해 싸우는 시장들

성평등을 향한 노력은 개별 도시만이 아니라 도시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11월 출범한 ‘CHANGE(City Hub and Network for Gender Equity)’¹⁷⁾는 젠더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의 집단적 힘을 활용하여 정부 서비스와 시스템을 모두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종 종교 민족 출신 장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또는 표현에 근거한 교차적 불평등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회원 도시는 격차를 식별하고, 도시 운영 전반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고, 성공을 위한 조치를 추적함으로써 체계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바르셀로나, 프리타운, 멕시코시티, 런던, 로스앤젤레스, 도쿄가 참여하여 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했다.

CHANGE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성별에 따라 여성들에게 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초대장을 맡은 로스앤젤레스 시장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는 “도시는 정책의 실험실로서 성평등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런칭 이벤트에 참여한 시장들은 젠더이슈가 사일로¹⁸⁾에서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였다.¹⁹⁾

16) <http://www.koreatimes.com.mx/news/articleView.html?idxno=1975> (최종검색: 2020.12. 5.)

17) <http://www.citieschange.org> (최종검색: 2020.12. 5.)

18) 사일로(silo)는 원래 곡식이나 사료를 저장해 두는 굴뚝 모양의 창고를 가리키는 말로, 통상 사일로 효과(Silo Effect)는 상호 소통 없이 내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 간 이기주의 현상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19) Sarah Wray(2000), Mayors form network to fight for feminist cities, <https://cities-today.com/mayors-form-network-to-fight-for-feminist-cities/> (최종검색:2020.12. 5.)



[사진 3] CHANGE: City Hub and Network for Gender Equity 런칭 이벤트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T860qyK3v4&feature=youtu.be>

창립멤버인 바르셀로나 시장 아다 콜라우는 런칭 이벤트 행사에서 “우리 시는 페미니스트 정부입니다(Our government stands as a feminist government)”라고 밝히고 바르셀로나 시의 ‘페미니즘과 LGBTI 부처(the city’s Office for Feminism and LGBTI affairs)’의 역할도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젠더이슈를 가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공정책의 주요 축이라는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이는 특정한 페미니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이 우리의 모든 공공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임을 의미”하고, 특히 “여성이 대부분 짊어지는 부담인 돌봄노동의 비가시화를 끝낼 것”을 촉구했다.²⁰⁾

5. 세계에서 가장 래디컬 한 시장²¹⁾, 아다 콜라우(Ada Colau)

주거권운동가로 활동했던 아다 콜라우는 2019년에 재선된 바르셀로나 시장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르셀로나에서 벌어진 은행의 주택압류와 강제퇴거에 저항하는 운동 PAH(Plataforma de Afectados por la Hipoteca, 주택담보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 공동창립자로, 시민정치운동 ‘인디냐 도스’(Indignados, 분노한 사람들)의

20) <https://www.youtube.com/watch?v=xT860qyK3v4&feature=youtu.be> (최종검색:2020.12. 5.)

21) 이 표현은 첫 당선 이후 아다 콜라우를 다룬 기사의 제목에서 가져왔다. ; Dan Hancox(2016), Is this the world's most radical mayor?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may/26/ada-colau-barcelona-most-radical-mayor-in-the-world> (최종검색:2020.12. 5.)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정치연대 ‘바르셀로나 엔 코뮤’(Barcelona en commú, 모두의 바르셀로나)에 참여하면서 2015년 선거에 출마해 처음 당선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장(mayors of change)”이자 “라 누에바 폴리티카(la nueva politica, the new policy)”라고 불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선거에 도전한 기록이 다큐멘터리 영화 “ADA FOR MAYOR: A political revolution in Barcelona”²²⁾로 만들어져 개봉되기도 했다.



[사진 4] 2013년 은행점거시위 진압 당시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의 아다 콜라우.

이 사진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포스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출처: photo by Emilio Morenatti, ©AP

당선 이후 콜라우 시장은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개별적으로 은행가들과 만나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²³⁾, 시장 연봉을 삭감·기부하고 시장에게 제공되었던 아우디 차량을 업무용 미니벤으로 교체하고 지하철로 출퇴근 했다. 콜라우가 2014년 선거운동에서 과정에서 했던 인상적인 연설 “우리는 누구입니까?(Who are you)”는 와글©WAGLE에서 한글자막을 실어 소개하기도 했는데,²⁴⁾ 그 내용 중에서는 여성들을 언급한 대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22) 이 영화는 2016년 4월에 첫 선을 보였으며 그 이후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영되었고, 여러 영화제에서 우수 다큐멘터리로 수상하기도 했다. <https://vimeo.com/ondemand/adaformayor> 에서 감상이 가능하다.

23) 스페인은 특히 은행가들과 정치인이 금전적으로 결탁한 비리가 문제가 되었던 상황과 연계된 대응이다.

24) https://youtu.be/rNR_LKExGwU (최종검색: 2020.12. 5.)

“무엇보다, 우리는 바로 여성들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죠. 지금까지 정치권력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지만, 잘사는 사람이건 못사는 사람이건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돌봄과 가사노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우리는 지역민들이고, 여성과 남성이고, 동네 이웃이고, 이 도시의 위대한 성취들을 지난 수십 년 간의 노력으로 일궈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조직하여,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방조 속에서 기존 체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콜라우 시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권 정책, 정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관광 정책 조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정책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에는 향후 20년 간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UN회의)Ⅲ에 참여해서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신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에 LGBTIQ 인권이 배제된 점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²⁵⁾ 콜라우 시장은 또한 취임 초기부터 바르셀로나 도시기본 계획(PAM 2016~2019)의 사회부문 예산 중 1억 5천만 유로(약 2,000억 원)를 빈곤층 비중이 높은 지역과 산간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시민 누구나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소득’(renda municipal)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하면서,²⁶⁾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 바르셀로나 기본소득 실험 ‘비민컴(B-MINCOME)’은 “바르셀로나의 빈곤 지역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로, EU의 UIA(Urban Innovative Actions)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바르셀로나 Eix Besòs 지역의 10개 지역에서 활발한 사회 고용 정책과 함께 경제 지원을 지방 포용 지원 형태로 결합하는 것의 효율성과 효과를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²⁷⁾ 비민컴은 2018년 5월부터 지급액의 25%를 지역화폐 REC(Recurs Econòmic Ciutadà)로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²⁸⁾

6. C40 도시 기후리더십그룹과 Women4Climate

아다 콜라우 시장은 CHANGE 뿐만 아니라 C40 도시 기후리더십그룹과 Women4Climate에도 참여하고 있다. C40 도시 기후리더십그룹(C40 Cities-Climate Leadership

25)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6/oct/19/un-new-urban-agenda-inclusive-cities-lgbtq-rights-habitat-3> (최종검색: 2020.12. 5.)

26) <https://www.si.re.kr/node/54028> (최종검색: 2020.12. 5.)

27) <http://ajuntament.barcelona.cat/bmincome/en/> (최종검색: 2020.12. 5.)

28) https://www.barcelona.cat/infobarcelona/ca/colau-anuncia-la-posada-en-marxa-del-pla-de-barris-de-barcelona_286129.html (최종검색: 2020.12. 5.)

Group)은 2005년 켄 리빙스톤(Ken Livingstone) 前런던시장 주도로 C20가 설립된 이래 2007년 C40로 확대 되었으며, 회원도시에 96개 도시(81개 대도시·15개 혁신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적 노력과는 별도로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세계 대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의체다.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C40는 ‘Deadline 2020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가 포괄적인 기후행동계획을 만들고 시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²⁹⁾ 지난 7월에 C40 Citie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구를 제공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로 <생태적이고 공정한 회복을 위한 C40 시장 프로그램>³⁰⁾을 발표하고, ① 선택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생태적 회복이며, ② 공정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③ 대중교통 보호 및 지원, ④ 청정에너지 우선순위 지정 및 투자, ⑤ 회복력 있는 도시에 투자, ⑥ 화석연료와 관련된 모든 보조금 및 공공 투자 종료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C40 Women4Climate에 참여한 개척자(Pioneers) 여성시장들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여성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밝히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³¹⁾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힘을 실어주는 Women4Climate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C40 도시의 여성을 위한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기후 리더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영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성별, 도시 및 기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도시에서 기후 행동을 옹호하는 여성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C40의 주요 글로벌 도시 여성 시장의 수는 지난 4년 동안 5배 증가했다. 2014년 초에 4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6월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 20곳에서 여성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C40 회원도시 시장의 여성비율은 21%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29) <https://www.c40.org/other/city-commitments> (최종검색: 2020.12. 5.)

30) https://www.c40.org/press_releases/maires-plan-relance-post-covid-19-ecologique-juste (최종검색: 2020.12. 5.)

31) <https://w4c.org/> (최종검색: 2020.12. 5.)

〈표 1〉 2018년 기준 C40 회원도시 여성시장 현황

이름	지역	국가
Anne Hidalgo	Paris	France
Elisabeth Ackermann	Basel	Switzerland
Muriel Bowser	Washington D.C	USA
London Breed	San Francisco	USA
Sally Capp	Melbourne	Australia
Manuela Carmena	Madrid	Spain
Ada Colau	Barcelona	Spain
Latoya Cantrell	New Orleans	USA
Jenny Durkan	Seattle	USA
Hanna Gronkiewicz-Waltz	Warsaw	Poland
Zandile Gumede	Durban	South Africa
Fumiko Hayashi	Yokohama	Japan
Yuriko Koike	Tokyo	Japan
Carrie Lam	Hong Kong	China
Patricia de Lille	Cape Town	South Africa
Clover Moore	Sydney	Australia
Valerie Plante	Montreal	Canada
Virginia Raggi	Rome	Italy
Karla Rubilar	Santiago	Chile
Karin Wanngård	Stockholm	Sweden

7. 단단한 페미니스트 파리 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의 ‘15분 도시’

2019년까지 여성 최초로 C40 의장을 맡아 Women4Climate Initiative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 안 이달고 시장은 2014년에 파리의 첫 여성시장으로 당선된 이래 2020년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2014년에도 여성후보들 간의 경쟁이었고³²⁾, 2020년도 다르지 않았다.³³⁾

스페인 이민자 출신인 이달고 시장은 1982년부터 9년 가까이 근로감독관으로 일했고, 1994년 사회당에 들어가 주35시간 근무제 도입을 주도한 노동부장관의 보좌관을 맡았다. 2001년 지방선거에 도전했고 첫 여성 부시장으로 13년 간 파리 시정을 맡아온 경험 있는 여성정치인이다. 부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무인자전거 대여 시스템 ‘벨리브’를 도입했고, 1기 당시에도 공공임대주택 및 유치원 증설 등 친서민정책을 펼치면서 자동차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프로그램과 공원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재선이 되면서는 더 적극적으로 ‘15분

32) 경쟁후보는 나탈리 코시우스코-모리제(Nathalie Kosciusko-Morizet, NKM)였는데, 사르코지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지냈다.

<https://www.economist.com/europe/2014/02/01/an-all-female-race> (최종검색: 2020.12. 5.)

33) <http://vip.mk.co.kr/news/view/21/21/3310771.html> (최종검색: 2020.12. 5.)

도시'³⁴⁾를 제시하고, 파리 시내 지상 주차공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차공간 6만개를 줄이고” “자동차로 파리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횡단하는 것은 이제 잊어버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보행과 자전거 중심도시를 강조하고 있다.³⁵⁾ ‘그린뉴딜’로 라벨링하고 있지 않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것이다. 유력 정치인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당선 후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사진 5] 안 이달고 파리 시장

©Le Parisien

이달고 시장이 향후 6년간의 시정 계획으로 내놓은 ‘파리를 위한 선언(ville de Paris)’은 생태와 연대 그리고 건강을 키워드로 삼고 있으며, 파리 전역 운행속도 30km/h 제한, 3대 건설 계획 백지화 및 제3의 숲 조성, 주차장 면적 절반 축소 후 도시를 정원화, 생태기후적 지역도시계획(PLU: Plan local Urbanisation), 디지털 광고판 퇴출, 에어비앤비(Airbnb) 주택을 저렴한 공공임대로 전환, 공공건물 옥상을 파리지앵의 식량 농장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연대 구축 등을 핵심 정책으로 담고 있다.

최근에 다시 이달고 시장의 의회연설이 화제가 되면서 트위터를 통해 널리 퍼지기도 했는데, 파리가 고위직 여성 비율 60%를 넘겨 젠더 패리티(gender parity) 규정 위반으

34) ‘15분 도시’의 개념은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이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걸어서 15분 반경 내에 생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시를 바꾸겠다는 구상으로 (<https://www.paris.fr/pages/la-ville-du-quart-d-heure-un-concept-partage-dans-le-monde-15882>), C40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5분 도시’를 정책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다.

35) <https://www.leparisien.fr/politique/anne-hidalgo-fixe-le-cap-pour-paris-ce-nouveau-mandat-sera-celui-de-la-vegetalisation-22-07-2020-8357289.php> (최종검색: 2020.12. 5.)

로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³⁶⁾ 이달고 시장은 부당한 벌금이지만 벌금을 부과 받게 되어 오히려 기쁘고, 지금까지 프랑스 전반이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언젠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여성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 과연 한국은 달라지게 될까

2021년 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응답률 8.1%)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여성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성 시장 후보가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38.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4%로 나타났다. 이 응답결과를 두고 해당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도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 서울시장에 공감하는 비율이 38.4%에 달한 것은 변화와 새로움을 원하는 유권자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지만,³⁷⁾ 실제 단지 성별에 따른 적합도 질문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민들이 절반을 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질문 자체에 한계가 있는 탓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세계는 ‘생태’ ‘경제’ ‘민주주의’라는 복합위기의 ‘삼중고(trilemma)’에 빠져있고, 간략하게나마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도시의 여성 시장들은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이 복합위기를 헤쳐나갈 정책적 기획과 급진적 실천을 통해 정치적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로컬 레벨의 유리천장은 부서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³⁸⁾는 점을 우리 사회도 다시 새겨보아야 한다.

36) https://www.huffingtonpost.fr/entry/anne-hidalgo-invite-les-femmes-a-venir-avec-elle-regler-lamende-pour-non-respect-de-la-parite_fr_5fd8ba45c5b663c37599d8b4?ncid=other_twitter_cooo9wqtham&utm_campaign=share_twitter (최종검색: 2020.12.16.)

37)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69> (최종검색: 2020.12.12.)

38) https://www.c40.org/press_releases/20-women-mayors-of-c40-cities-reveal-the-growing-power-of-the-women4climate-movement (최종검색: 2020.12. 5.)